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8월 29일(음력 7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643 호

하안거 끝나도… 식지않는 경전공부 열기

선교연구모임·경전연구회·선문회 등 수행자 모임 활성화

하안거 한철 살림살이도 끝났다. 폭염보다 뜨겁게 정진하던 수좌들도 괴나리봇짐을 싸고 산문을 나섰다. 만행이다.

하지만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해제법어를 통해 "해제는 그냥 해제가 아니다. 멍청하게 다닌다면 가는 곳마다 곳곳에 있는 생채기에 걸려 자빠질 뿐"이라며 고삐를 더욱 죄었다.

하안거 해제 후 결제동안 공부했던 것을 더욱 탁마하기 위한 공부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 부설 불교서울전문강당 동문회 선교연구모임(운영위원장 법경)은 9월 15일부터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을 초청해 〈능가경〉 강의를 진행한다.

선교연구모임은 불교서울전문강당을 졸업한 1 · 2기 스님들이 공부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다. 강의는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대상은 출가자의 경우 법랍 15년 이상,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승가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재가자는 불교서울전문강당 졸업자, 재학생 및 불교대학이나 불교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재적사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선교연구모임은 〈능가경〉 강의 후 원효 대사의 〈금강삼매론〉 강의, 고려조 제관 법사의 〈천태사교〉 강의 등을 기획하고 있다.

조계종 출가수행자들의 모임인 경전연구회(회장 지장)도 9월 6일 오후 3시 서울 미타사 내 대승암에서 충주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을 초청해 '수행과 삶이 하나되는 길'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10월 15일부터는 1년 과정으로 하동 쌍계사 강주 통광 스님을 초청해 〈전등록〉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는 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3시 열린다.

경전연구회는 3년 전 조계종 산하 불교대학 교수사를 양성해 전 종도의 교육화, 조직화, 체계화에 기여하기 위해 창립됐다. 조계종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년에 2번 이상 전통선원에 입방해 선원장 스님들의 지도아래 정진하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선원 선문회(회장 육문)도 9월 1일부터 4일까지 울진 불영사 내 천축선원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을 초청해 〈서장〉 특강을 연다.

특강은 지난 안거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점검하며 새롭게 발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공간 부족으로 800여명이 넘는 비구니 수좌들 모두에게 기회가 돌아가지는 않는다. 한 사찰당 몇 명씩으로 배분해 총 100명이 수강할 계획이다.

선문회 기획실장 성정 스님은 "비구니 수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차에 이어 2 · 3차 특강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정해년 하안거 해제법어 발표

불기 2551년 정해년 하안거 해제일인 8월 27일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각 총림에서 해제법어를 발표했다. 〈법어 4면에〉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법안록〉의 법안문익 선사(885-958, 당나라)가 던진 '배로 왔는가? 걸어왔는가?'라는 비유적인 질문을 통해 '공부 길'을 물은 그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릴 때 해제기간의 만행이 참으로 의미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전국 선원의 정진대중 현황을 정리한 〈정해년 하안거선사방함록〉에 의하면 전국 93개 선원(총림 5곳, 비구선원 54곳, 비구니선원 34곳)에서 정진대중 총 2221명(비구 1119명, 비구니 933명, 총림 169명)이 용맹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동우 기자

불교박사 신부님 현직 신부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에서 인도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불교의 뿌리를 연구하고 싶었다"는 가톨릭 서울대교구의 박문성 신부(40 · 사진 오른쪽)는 8월 24일 동국대 가을학위 수여식에서 논문 '깨달음의 달의 출현의 해탈관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문포교사 첫 선발 고시 실시

조계종 포교원은 9월 20일 제1회 전문포교사 선발 고시를 실시한다.

응시분야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 청소년, 청 · 장년 포교분야, 직장직능 및 군경교도소 포교분야,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 △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 포교분야, 출판 · 인터넷 포교분야, 예능 · 스포츠 포교 분야) △사회 · 복지전문포교사(환경, 평화, 인권(외국인근로자 포함) 및 통일 포교분야, 자원봉사 · 복지 및 포교분야, 법률 · 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 9월 10일까지 포교원(02-2011-1916)으로 접수하면 된다.

포교원은 또 10월 28일 불기 2551년도 국제포교사 자격고시를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외국어에 능통한 조계종 스님과 고등학교 또는 동등 학력 이상을 소지한 조계종 신도. 전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고사 및 면접 등으로 이뤄진다.

응시를 원하는 스님 및 재가불자는 응시원서 등을 첨부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교원(02-2011-1891)으로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불교계도 재정 투명성 높여야"

교단자정센터, 가톨릭서울교구 재정공개 환영 논평

가톨릭 서울대교구가 회계법인 감사결과를 최근 공개한 것과 관련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환영한다는 내용의 논평문을 발표하고 불교계도 복식회계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교단자정센터는 8월 22일 논평 발표문을 통해 "불교계도 사찰운영위원회법 제정, 중앙종회 결산감사 모니터링 허용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종단 재정을 공개하는 등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하지만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비리로 인한 교구본사의 사법적 처벌이 끊이지 않고, 단위 사찰의 재정 공개나 사찰 운영의 신도참여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자정센터는 "조계종 직할 교구의 예결산 공개를 시작으로 교구본사 차원의 재정공개 실현과 정보공개에 관한 제도가 마련됨과 동시에 종단적으로 복식회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불교미디어 정책 개발 공청회

불교미디어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공청회가 9월 13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김재일 사단법인 보리 이사장은 △미디어 시대와 불교 △종교계 미디어 교육과 활용을 통한 지역 포교전략 △불교 미디어 정책 방향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남동우 기자

東大, 교직원 학력 검증

신정아씨의 '가짜 박사 학위' 파문으로 곤욕을 치른 동국대가 신씨 사건을 계기로 모든 교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키로 했다고 8월 22일 밝혔다.

동국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동국대 본관 회의실에서 제230회 이사회를 열어 총장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교직원의 학력과 경력을 검증키로 결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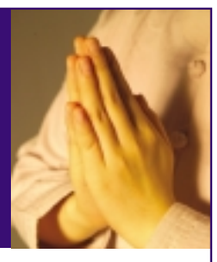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이사회에서 '신정아씨 사건' 처럼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요식행위로 도장을 찍어 임용 절차를 통과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사회에서 큰 틀이 잡힌 만큼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학교 측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I Love Buddha / 동상이몽

용정운(www.zentoon.com)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 (평촌역 도보 5분)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남성용 한지팬티 ₩23,000원
size 100호, 105호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www.jisarang.co.kr
◆ 지누리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2,5호선 충정로역 8번출구 →마을버스(오거리 방향)승차 → 경기대 후문역 하차